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전망*

-문화 형식(이해)의 변동을 중심으로-

최 성 환

주제분류 문화철학, 사회철학

주요어 문화 위기, 문화 개념, 다문화주의, 초문화주의

요약문

세계화 더불어 전개되고 있는 사회변동의 핵심에는 ‘문화영역의 재정립’이라는 과제가 놓여 있으며, 이것은 일반적으로 ‘다문화주의’라는 개념적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권위적인 정치구조와 강력한 단일 민족(문화)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견지해온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다문화주의는 그것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제대로 인지되지도 담론화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상황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 이제 단일 혹은 개별 문화로서의 전통적인 문화 개념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문화(현상)에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문화적 근본사실(Faktum)에 속한다. 결국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규명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문화 형식(이해)의 틀에서 탈피해야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이것은 이미 짐멜(G. Simmel)이 이미 약 1세기 전에 ‘문화의 비극’이라 표현한 위기현상으로서, 소위 ‘객관적 문화’와 ‘주관적 문화’가 서로 조화되지 못하여 엄청난 객관적 문화의 홍수 속에서 제대로 순응하지 못하는 ‘문화 이해(수용)’와 문화 창조의 주체로서의 우리의 방향이 시작된다. 따라서 문화이해를 위한 방향설정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이런 배경에서 이 연구는 현대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문화현실을 해명하고, 새로운 문화 해석틀을 제시하고자 시도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전통적인 문화 개념과 그 한계를 살펴보고, 그 다음 이러한 전통문화개념의 한계를 넘어서서 성립된 다문화주의의 구상을 조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다문화주의(Multikulturalismus)가 (현실인식이라는) ‘사회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7-411-J02001).”

학적 사실'을 넘어 (지향적 가치 즉) '규범적 요청'으로서 제기될 때 상당한 난점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벨시(W. (Welsch)가 제시하는 초(超)문화주의(Transkulturalismus)를 통해서 다문화주의(연구)의 지향점을 잠정적으로 설정해보고자 한다.

I. 들어가면서: 문화의 위기 혹은 문화 개념의 위기(?)

권위적인 정치구조와 강력한 단일 민족(문화)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오랫동안 지탱해온 한국 사회에서는 분명 다문화 현실이 엄연히 존재했 으면서도 제대로 인지되지도 담론화되지도 못하였다.¹⁾ 단일 민족(문화)이 라는 문화적 강박관념이 때로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한 것 또한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단일 혹은 개별 문화로서의 전통적인 문화 개념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문화(현상)에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근본사실(Faktum)에 속한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개별 문화의 가치와 흔 적이 ‘적어도 의미상 혹은 표현상’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우리 정체성의 한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것’이라고 부르는(생각하 는) 것이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삶의 방식이 더 이상 고립된 문화의 지속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다. 특히 20세 기 후반부터 이루어진 급격한 사회 변동은 우리를 단일 민족(문화)에 대 한 환상에서 벗어나서 다문화주의를 새로운 현실의 해석틀로서 수용하도록 만들고 있다.

게다가 다문화주의와 무관하지 않은 오늘날의 포스트모던적 사유방식 은 이른바 ‘탈중심성’이라는 특성에 의해 문화에 대한 개념적 접근을 어렵게 만든다. 말하자면 문화는 넘치지만 문화 이해는 매우 어려운 상황 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짐멜(G. Simmel)이 이미 약 1세기 전에 ‘문화의 비극’이라 표현한 위기현상이 우리 앞에 대두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 ‘객 관적 문화’와 ‘주관적 문화’가 서로 조화되지 못하여 엄청난 객관적 문화 의 홍수 속에서 제대로 순응하지 못하는 ‘문화 이해(수용)와 문화 창조의 주체’로서의 우리의 방향이 시작된다. 따라서 문화이해를 위한 방향설정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1) 이상길/안지현, 「다문화주의와 미디어/문화연구: 국내 연구동향의 검토와 새로운 전망의 모색」, 『한국언론학보』, 51권5호(2007), 66쪽.

이런 배경에서 이 글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문화 현실의 이해를 위한 최소한의 이론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 형식(이해)의 변동 과정과 그 귀결을 추적하고자 한다. 먼저 전통적인 문화 개념과 그 한계를 살펴보고, 그 다음 이러한 전통 문화개념의 한계를 넘어서서 성립된 다문화주의의 구상을 조명하고자 한다. 특히 이 글은 다문화주의(Multikulturalismus)가 (현실인식이라는) ‘사회학적 사실’을 넘어 (지향적 가치 즉) ‘규범적 요청’으로서 제기될 때 상당한 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초(超)문화주의(Transkulturalismus)를 고찰함으로써 다문화주의(연구)의 지향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단일문화로서의 전통적인 문화 개념과 한계

일반적으로, 특히 서구를 중심으로 통용되고 있는 단일 문화로서의 전통적 문화 개념은 18세기 말 독일의 철학자 헤르더(J. G. Herder, 1744~1803)에 의해서 정식화되어졌다. 그는 역사와 문화세계의 학문적 위상에 대해 새로운 토대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헤르더의 문화 개념은 오랜 기간 동안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며, 여전히 많은 이들은 이 개념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타당하다고 간주한다. 특히 이 개념은 우리가 오늘날까지 줄기차게 강조해온 단일민족(문화)이라는 관념에 매우 근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 전통적 문화 개념의 근본 특징: ‘내적 동질화’와 ‘외적 경계설정’

단일문화로서의 전통적 문화 개념의 구상은 크게 세 가지 규정요소로서 특징지어질 수 있다. 그것은 사회적인 동질화, 인종적인 기반 그리고 상호 문화적 경계설정이다.²⁾ 먼저, 이 구상은 강한 통일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하나의 문화는 연관된 민족의 삶을 전체에서뿐만 아니라 개

인적인 영역에서도 영향을 끼쳐야 하며, 모든 행위와 모든 대상을 바로 ‘이’ 문화의 혼동할 수 없는 구성요소로 만들어야만 한다. 둘째, 이 구상은 민족결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문화는 항상 **한** 민족의 문화이어야만 한다. 헤르더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문화는 **한** 민족의 현존의 “정수(精髓)”(die Blüte)³⁾를 나타낸다. 셋째, 이 구상은 분리주의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위의 두 가지 구성요소들부터 ‘외부로 단호한 경계설정’이라는 측면이 드러난다. **한** 민족의 문화로서 각각의 문화는 다른 민족들의 문화로부터 특수하게 구별되고 경계를 설정해야만 한다.

2) 전통적 문화 개념에 대한 문제제기

그러나 전통적인 문화개념의 요소들은 모두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 먼저 현대 사회는, 통일성이 이 사회에 있어서 더 이상 기초적이지 않으며 결코 도달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극도로 다양화되어졌다. 오히려 제기될 수 있는 물음은 이러한 통일성이 진정 존재한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데올로기적인 회구’ 이외의 다른 것인지라는 점이다. 문화란 “그 안에서 한 민족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침상에서조차, 살아가는 전체형식”⁴⁾이라는 엘리엇(T. S. Eliot)이 1948년 제시한 신(新)헤르더 진술은 오늘날의 조건아래에서는 명백히 이데올로기적인 포고(布告)에 불과한 것이다. 도처에서 우리가 경험하듯이 현대에서 인간들은 그렇게 통일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며, 현대 사회는 그 자체로 다문화적이다. 현대 사회는 아래에서 알 수 있듯이 상이한 생활방식과 생활형식의 다수를 포괄하고 있다.⁵⁾

2) R. Konersmann, *Kulturphilosophie*, Hamburg 2003, 12쪽 아래 참조.

3) J.G. Herder, *Ideen zur Philosophie der Geschichte der Menschheit*(Hg. M. Bollacher), FfM 1989, 571쪽.

4) T.S. Eliot, Beiträge zum Begriff der Kultur, in: Ders., *Essays I(Werke 2)*, Ffm (Suhrkamp) 1967, 29쪽(W. Welsch, Transkulturalität. Zur veränderten Verfassung heutiger Kulturen, in: *Hybridkultur*(Hg. I. Schneider/C. W. Thomsen), Köln 1997, 68쪽에서 재인용)

먼저 현대 사회는 수직적으로 다양화되었다.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다양한 노동환경의 문화, 주거지역의 문화, 대안적인 활동영역의 문화 등은 결코 문화적인 공통분모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 다음 현대 사회는 수평적으로 다양화되었다. 예컨대 여성적인 방향설정과 남성적인 방향설정, 이성애적인 방향설정과 동성애적인 방향설정은 문화적인 본보기와 생활형식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근거할 수도 있다. 이미 첫 번째 문제제기에서 전통적인 문화개념은 더 이상 적절하지 못하며, 현대 문화가 표출하고 있는 내적인 복잡성에 부응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것은 기껏해야 동질화의 요구에 대한 잘못된 대답일 뿐이다.

둘째, 고전적인 문화 개념의 인종적인 기반 또한 애매한 것이다. 헤르더는 문화를 폐쇄된 구(球) 혹은 독립적인 섬으로 생각하였다. 이 때 이 구(球)와 섬은 한 민족의 영토적인 그리고 언어적인 외연과 일치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그러한 민족에 대한 정의(定義)는 고도로 허구적인 것이며, 그것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분명한 혼합의 증거를 모두 부인해야하는 어려움에 빠진다. 더욱이 그러한 민족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오늘날 세계도처에서 경험하듯이,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것이다.

셋째, 전통적인 문화개념의 구상은 외적인 경계설정을 요구한다. 헤르더의 다음 표현은 오늘날에도 타자와 연관해서 여전히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관계를 정식화하고 있다. “나의 본성과 여전히 동류적이며, 내 본성에 동화되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는 부러워하고 추구하며 내 것으로 삼는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를 냉담, 냉정 그리고 무분별과 같은 정당한 본성으로 무장시키고, 이러한 본성은 심지어 경멸과 혐오가 될 수도 있다.”⁵⁾ 타자의 문제는 근대의 특징적인 산물중의 하나이다. 상대적으로 자립적인 개인의 출현은 근대의 현상이다. 근대 주체의 형성에는 바로 타자와의 경계설정이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그런

5) W. Welsch, 위의 논문, 68쪽 아래 참조.

6) J.G. Herder, 위의 책, 45쪽.

주체에 상응하는 단일문화라는 구상이 등장하는 것도 근대적 사유의 자연스러운 진행이라 할 수 있다.⁷⁾

이와 같은 맥락에서 헤르더는 고유한 것과 낯선 것의 방어라는 한 문화가 나타내는 ‘집중’의 이중적인 모습을 정당화한다. 전통적인 문화 구상은 내적인 동질화와 외적인 경계설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구상이다. 거칠게 표현하면 이 구상은 자신의 개념적인 귀결에서 ‘문화적 인종주의’에로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 순수성의 요구가 첨가된 구(球)의 전제는 문화들 사이의 상호적인 이해를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종류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요구는 분리주의로 인도하며, 정치적인 갈등과 전쟁의 길을 예비하게 된다.

요약하면 고전적인 문화개념은 오늘날의 문화 현상을 고려할 때 ‘경험적으로’ 즉 ‘기술적(記述的)으로’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향할 목표로서도’ 즉 ‘규범적으로도’ 위험하고 근거가 박약하다. 이러한 구상으로부터의 결별은 모든 견지에서 이미 고지되어졌다. 오늘날에는 문화를, 아도르노(Theodor W. Adorno)가 ‘고유한 것, 마찬가지로 이질적인 것의 피안’⁸⁾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이, 고유문화와 타문화라는 대립을 넘어서서 사유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3. 다문화주의의 구상과 한계

1) 다문화주의의 성립배경

최근 다문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에서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문화주의는 대체로 민족주의적 정서에 대한 도전, 근대

7) 라이너 출, 『오늘날 연대란 무엇인가』(최성환 옮김), 도서출판 한울, 2008, 181쪽 아래 참조.

8) Theodor, W. Adorno, *Minima Moralia*, in: Ders., *Gesammelte Schriften*, Bd., 4, FfM(Suhrkamp) 1980, 182쪽.

성에 대한 인식론적 도전 그리고 세계화가 가져온 변화에 대처하거나 세계화가 초래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지속적인 학문적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과거의 다문화주의는, 현실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다분히 학문적 호기심이나 미래적 전망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면 다문화주의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정치사회적으로 한국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응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다문화 공존의 필요성이 직접적인 정치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요구하는 수준으로까지 진전된 것이다.⁹⁾

다문화주의의 성립과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다문화주의는 먼저 하나의 ‘사회학적 사실’로서 즉 현재 서구사회는 다양한 관점과 요소(인종, 언어, 종교, 계급(층), 성, 이데올로기, 민족성, 국가 등)에 있어서의 현저한 문화적 차이를 갖는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이러한 ‘기술적’(記述的) 차원을 넘어서서 다문화주의가 비교적 새로운 현상으로 부각된 것은 그것이 하나의 ‘강력한 규범적 성격’을 가지는 윤리·정치적 원리로서 제시된 데 있다. 즉 다문화주의는 정치원리 또는 정책의 구상이 다양한 문화집단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모든 사회 문제(행정과 법, 교육과 고용, 가족, 이민 등)에 관련된 정부정책의 기본목표로서 문화적 다양성의 추구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주장을 내포한다.¹⁰⁾

오늘날 전지구적 현상이 되고 있는 다문화사회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유럽국가(영국, 독일 그리고 프랑스)처럼 비교적 동질적인 문화를 가졌던 전통적인 국민국가들이 식민지 경영과 산업화 과정에서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를 겪게 되고, 그 결과 이주노동자와 낮은 문화 그리고 새로운 종교의 유입과 함께 다문화 사회의 도전에 직면한 경우이다. 최근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인종갈등이 그러한 도전의

9) 곽준혁, 다문화 공존과 사회적 통합, 『대한 정치학보』 15집2호(2007), 23쪽 아래.
10) 김비환, 「포스트모던 시대에 있어 합리성, 다문화주의 그리고 정치」, 『사회과학』 제35권 1호(1996), 206쪽.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국가의 출범 초기부터 다양한 인종과 문화로 구성된 이민자의 나라였던 캐나다, 미국 등의 경우로서 이들은 상대적으로 다문화사회의 도전에 익숙하지만 여전히 이들 나라에서 사회통합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단일민족과 단일문화를 강조하던 우리나라는 첫 번째 유형에 가깝지만 최근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변화에 따라 점점 다양하게 분화되는 인종과 문화, 지역과 종교 등의 도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¹¹⁾

2) 다문화주의의 한계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여 많은 이들이 다문화주의가 이러한 변화에서 비롯되는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해주리라는 기대를 숨기지 않는다. 다문화주의라는 슬로건은 그 자체로 매우 긍정적으로 들리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의 실제적인 적용과 실현의 측면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이미 오래 전부터 다문화주의라는 구상에 관심을 쏟아온 외국 학계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시각은 결코 곱지만은 않다. 초기에 다문화주의는 정치적으로 배제와 동화에 대한 도덕적·사회적·정치적 저항, 사회적으로 세계화가 초래한 새로운 갈등의 해소를 위한 대안, 인식론적으로는 근대의 획일성에 대한 비판이라는 다양한 측면에서 규범적 당위성을 부여받았다. 반면 오늘날 다문화주의는 집단 이기주의와 학문적 유행의 퇴행적 결합으로까지 간주되고 있다. 심지어 새로운 전선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기존의 다문화주의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자유주의적 보편주의나 민족주의적 보수진영이 아니라 공동체의 복원, 소외된 계층의 구제, 그리고 획일적 민족국가 건설전략에 대한 저항이라는 측면

11) 김남국, 다문화 시대의 시민: 한국사회에 대한 시론, 『국제정치논총』 제45집 4호 (2005), 98쪽과 이상길/안지현, 위의 논문, 60쪽 참조. 특히 최근 십여 년간 국내 거주 외국인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주 노동자는 합법 체류자와 불법체류자를 모두 합쳐 2006년6월 기준으로 약 40만명에 달하는데, 이는 1990년에 비해 약20배가 늘어난 수치이다. 국제결혼도 2006년에는 39,690건으로 전체 결혼 건수의 11.9%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에서 지금까지 다문화주의에 우호적이었던 진영으로부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¹²⁾

문제는 다양한 문화와 집단의 평화적 공존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다문화주의가 이러한 다문화 공존의 틀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 원칙인가에 대해서 이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다.¹³⁾ 다문화주의를 표방했던 대표적인 국가인 호주가 최근 그 정책의 공식폐기 입장을 발표했다. 이러한 선회의 배경에는 최근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인종갈등의 문제가 놓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다문화주의가 더 이상 사회통합의 원리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¹⁴⁾

뿐만 아니라 다문화주의의 다의성과 다양한 스펙트럼을 고려할 때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는 많은 혼선을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접근에서 매우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며 그런 배경에서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그 구조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¹⁵⁾ 여기서는 특히 다문화주의가 단일문화라는 개념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개념적 구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1) 다문화주의의 개념적 구조

12) 박준혁, 위의 논문, 25쪽. 실제로 다문화주의의 등장은 개인주의의 극복과 공동체 복원으로 환영했던 시민적 공화주의 또는 공동체주의자들은 다문화주의를 시민적 덕성의 추락이라는 점에서 비판하고 있고,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의미에서 다문화주의를 지지했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부의 재분배라는 보다 본질적인 정치사회적 과제를 도외시한 채 문화라는 추상적이고 심리적인 안정에만 주력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3) 같은 논문, 같은 곳.

14) 이상길/안지현, 위의 논문, 59쪽 참조.

15) D. T. Goldberg, *Multiculturalism: a Critical Reader*, Oxford 1994, 7쪽 아래 및 김옥동, 「다문화주의의 도전과 응전」, 『미국학논집』, 제30집 1호(1998), 30쪽 참조. 미국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문화주의는 크게 네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보수주의적’ 다문화주의이고, 둘째는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이며, 셋째는 ‘좌파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이고 넷째는 ‘비판적’ 다문화 주의이다.

물론 다문화주의에도 다양한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서 그 개념을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상적인’ 의미에서 다문화주의자들은 문화가 특정한 집단의 고정된 속성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집단들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생겨난 산물로 간주한다. 게이츠(Henry Louis Gates, Jr.)가 정의하듯이 문화적 정체성은 서로 다른 문화 간의 대화에서 생성되고 서로 다른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갈등과 절충, 자기형성 및 재형성”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모한다.¹⁶⁾ 따라서 다문화주의자들은 다양한 문화간의 유동적인 균형을 조장하고 보존하며 불완전한 균형 속에서 충돌과 대화를 통해 그 모습을 끝없이 변형시켜나가고자 한다.¹⁷⁾ 그러나 융합적 특성, 개방성 그리고 비결정성 등에 특징지어지는 다문화주의는 이념을 넘어 실제적인 정착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대부분 다문화주의를 표방한 나라에서 이 정의에 상응하는 성공사례를 찾아보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다문화주의의 개념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벨쉬(W. Welsch)는 다문화주의가 상이한 문화들을 계속해서 독립적인, 그 자체로 동질적인 형성체로서 이해함으로써 개념적으로 여전히 단일문화라는 관습적인 문화이해의 계열에 놓여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다문화주의는 융합되지 못한, 다양한 단일 문화들의 병존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그러한 이해방식의 원리적인 결함이 놓여 있다. 다문화주의의 구상은 **하나의 그리고 동일한** 사회 안에서의 상이한 문화의 공존에 대한 물음을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제기 자체만으로도 다문화주의는 예전에 제기되었던 전통적인 문화 개념의 구상에 포함된 사회적인 동질화를 향한 요구에 비해서는 분명 하나의 진보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

16) Henry Louis Gates, Jr., "Beyond the Culture Wars: Identities in Dialogue", *Profession* 93(1993), 11쪽.

17) 정상준, 「다문화주의를 넘어서」, 『미국학』 24집(2001), 85쪽 참조.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정치적인 색채를 띠고 있으며, 다문화주의가 정치적 야망과 권력추구를 위장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문화적·인종적 다양성을 강조하는 경향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같은 논문, 78쪽 아래 참조).

구상은 한 사회 내부에서의 이러한 문화적 복수성으로부터 비롯되는 문제의 해결에 어떤 기여도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이 다문화주의 구상이 여전히 예전의, 동질화하는 문화개념을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 구상은 각각의 개별 문화들을 여전히 ‘동질적이고 잘 구획된 것’이라는 헤르더적인 관점에서 이해한다.¹⁸⁾

또한 다양한 단일문화들의 병존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며, 다문화주의가 이론적 근거로 내세우는 ‘문화 상대주의’도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문화 사이의 우열을 거부하는 입장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anything goes)는 극단적 상대주의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적인 문화의 위상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보편적 가치의 설정이 적어도 ‘하나의 규제적 이념’(eine regulative Idee)으로서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¹⁹⁾ 만일 이 이념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지면 문화상대주의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다문화주의도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전통적 문화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형성된 다문화주의적 이해의 토대위에서는 상이한 문화적 집단들 사이의 관용, 수용 그리고 갈등회피의 문제를 다루게 될 때 아마도 파국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기간 동안의 잠정적인 휴전 정도는 사유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 방식에서는 실제적인 소통 혹은 분리적인 제한의 극복은 사유되거나 도달되지 못한다. 다문화주의 구상은 오히려 그러한 제한의 가정과 수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런 연유로 다문화주의는, 얼마 전부터 미국사회에서 드러난 것처럼, 심지어 중심과 주변부, 주류와 비주류라는 경계설정의 정당화와 강화된 원용(援用)을 위하여 오용 내지 감내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구상은 문화적 정체성에 기대어 고립화와 문화적 근본주의로 이끌 수 있는 퇴보적인 경향을 후원하는 위협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 구상에서는 골동품적인 문화이해라는 유산의 부담을 야기한다. 원리적으로 독립적

18) W. Welsch, 위의 논문, 69쪽 아래 참조.

19) 김옥동, 위의 논문, 45쪽.

이고 구(球)적인 것으로서 파악된 문화는 서로 이해할 수 없으며, 이러한 파악의 논리에 상응하게 서로 경계지우며 무시하고 오해하며 비방하고 투쟁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 헤르더는 아주 명백히 표현하고 있다. 그러한 문화들 즉 구(球)들은 단지 부딪힐 수 있으며, 따라서 다른 문화의 거부가 각각의 문화에 있어서 행복의 조건인 것이다.²⁰⁾ 내적인 동질화와 외적인 경계설정이라는 요구와 함께 예전의 문화구상의 지속적인 작용은 문화다원주의의 맥락에서 과격한 애국주의(Chauvinismus)와 문화적 분리주의로 인도한다.²¹⁾

따라서 다문화주의의 구상이, 모든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개념적으로 여전히 전통적인 문화 개념의 전제들, 즉 섬 혹은 구(球)와 같은 종류의 문화체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전제에 동의하는 한 그러한 종류의 문화들 사이의 갈등은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그러한 전제로부터 갈등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벨쉬의 지적에 따르면, 다문화주의 구상의 추종자들이 비록 사회적으로 보장된 자유의 권리를 다문화적인 집단을 위하여 충실히 요구하고 있지만, 심화된 다문화주의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소극적으로만 대처하려 한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므로 오늘날 다문화주의에 대한 납득이 가는 버전은 다문화적인 물음을 여하튼 애초부터 많은 문화가 ‘삼투(滲透)하는 현상’(서로 스며드는 현상)에 대한 시각에서 시작해야만 한다.²²⁾

문화의 공존과 협력이라는 문제는 적어도 다문화주의가 단일문화라는 전통적 문화개념의 전제들을 내세우는 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단지 오늘날의 문화를 섬 혹은 구(球)로서 서술하는 것은 ‘기술적’(記述的)으로 잘못된 것이며 ‘규범적’으로 오도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자명한 것은 우리가 향유하는 문화가 더 이상 동질성과 분리성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²³⁾ 도처에서 우리는 혼합과 융합의 문화현상을 경험

20) J.G. Herder, 위의 책, 46쪽 참조..

21) W. Welsch, 위의 논문, 70쪽.

22) 같은 논문, 70쪽 아래.

23) 같은 논문, 71쪽.

한다. 우리의 문화는 이미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전개과정에서 갈등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갈등이 조정되거나 조화를 나타내는 현상 또한 찾아볼 수 있다.

3) 다문화주의적 정체성의 문제

다문화 현실과 직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이러한 현실은 어떤 위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일까?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 형성에 이러한 현실은 어떤 영향을 발휘하는 것일까? 정체성이란 이론이나 언어로 확실하게 정의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그것이 안정된 시기에 있어서는 일정한 집단 혹은 개인에게 있어서 암묵적으로 이해되는 어떤 것이다. 그것은 우선 타인(혹은 다른 집단)과의 구별을 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타인의 존재에 관한 인식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자신의 특이성이란 정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²⁴⁾ 그런데 오늘날 정체성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것은 이 시기가 일종의 위기이며 전환기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와 타자의 경계가 애매해졌으며, 우리 자신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타자에 대한 인식이 필수적이라는 관점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근래에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문화주의의 논쟁은, 비록 성공적이라 할 수는 없지만, 정체성 문제에 관하여 매우 유용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준다. 다문화주의의 요체는 먼저 우선 기본적으로 이 세상이 다양한 인종과 문화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의 인식이다. 둘째로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관하여 생각하는 방식이다. 미국에서 다문화주의는 주로 교육, 특히 교과과정의 문제와 관련되어 제기되었으며 그래서 다문화적 교육이란 인종간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행계획들을 총칭하는 말로 쓰였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성찰은 필연적으로 타자에 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²⁵⁾

24) 라종일, 「세계시민 연구와 다문화주의적 정체」, 『유럽연구』 5호(1997), 294쪽.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다문화주의에는 문화 상대주의의 문제점이 놓여 있다. 단순히 상호 문화 존중에만 주목한다면 상대주의의 굴레에서 궁극적으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융합적 다문화주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문화의 인정을 넘어서서 실제로 이런 문화들이 문화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삶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구성원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문화는 그 본래적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짐멜의 표현을 빌리면 마치 대상적인 사물처럼 단순히 주어진 ‘객관문화’로서만 타문화가 자리매김되어서는 안 되며 내적이고 정신적인 작용을 거쳐서 주관문화로 승화될 수 있어야 한다. 짐멜은 문화를 개인의 영혼이 “자신에게서 출발해서 자신에게 이르는 길”²⁶⁾로 이해한다. 이것은 인간이 주어진 객관문화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한 차원 더 높은 통일체로 종합되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문화는 “주관적 영혼의 에너지가 주체의 창조적 삶의 과정으로부터 독립적인 하나의 객관적 형태를 획득하고, 이 객체가 다시금 인간이 자기 존재의 중심으로 완성되도록 주체적 삶의 과정에 통합되는”²⁷⁾ 일련의 변증법적 과정으로 규정된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문화의 진정한 가치란 문화가 인간의 정신적인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창조해내는 가운데 형성됨을 알 수 있다.²⁸⁾

다양한 문화의 상호 병존이라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서 정신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문화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병존적인 다문화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문화 작용의 틀이 요구되어지며 우리는 이것을 초(超)문화주의라는 관점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25) 같은 논문, 294쪽 아래 참조.

26) G. Simmel, *Philosophische Kultur. Gesammelte Essays*, Leipzig 1911, 246쪽.

27) 같은 책, 253쪽.

28) 홍경자, 「세계화시대의 문화정체성 문제」, 『해석학연구』 18집(2006), 171쪽 아래 참조.

4. 다문화주의의 지향점으로서의 초(超)문화주의

1) 거시적 관점에서의 초(超)문화주의 현상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문화는 그것의 내적인 다양화와 복잡성의 결과로서 전통적인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는 초(超)문화주의적 양상을 보여준다.²⁹⁾ 가다머(H.-G. Gadamer)의 표현을 빌면, 오늘날 다양한 문화적 ‘지평들의 혼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험되고 있다. 오늘날의 문화 양상은 서로 스며들며 밀접하게 연관된 생활형식과 문화들의 다수를 포괄한다. 더 나아가 예전의, 동질화하고 분리하는 문화 이념은 문화의 외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추월되어졌다. 오늘날의 문화는 서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얽혀져 있다. 생활형식은 더 이상 한 국가문화의 한계에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며 다른 문화와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하게 된다. 경제인, 언론인 그리고 학자들의 생활형식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라는 범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계적으로 각인되어진다.³⁰⁾ 이러한 새로운 결합은 이민, 전지구적인 교통 및 통신의 체계 그리고 경제적인 결합과 종속성의 결과이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핵심적인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 ‘유목주의’이다. 다시 말하면 실제적인 공간의 이주와 더불어 미디어에 의한 상상의 이주가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서 정체성에 대한 패러다임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³¹⁾ 이러한 상호결합과 변화의 결과로 오늘날에는 자주 같

29) W. Welsch, 위의 논문, 67~90쪽 참조. 초문화주의(Transkulturalismus)라는 표현은 벨쉬(W. Welsch)에서 유래한다. 단지 이 번역이 적절한지 여부는 논의가 필요하다. ‘삼투작용(스며들)’과 ‘상호적인 연결’이라는 점에서 통(統)문화주의라는 표현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단일문화라는 전통적 문화개념과 다문화주의가 전제하고 있는 내적 동질화와 외적 경계설정을 넘어서는(초월한다)는 점에서 이 글에서는 초(超)문화주의로 표기한다.

30) 이재정,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의 모색: 재한외국인 정책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11(2003), 103쪽 참조. 2001년 기준으로 한국의 출입국자 수는 220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외국인이 약 1천만 명이다.

은 문제와 의식상태가 소위 ‘그렇게 근본적으로 다른’ 문화에서도 등장한다. 예를 들면 인권 논쟁, 페미니스트적인 운동 혹은 생태학적인 의식 등과 같이 보편화되어지는 주제들의 등장이 그것이다.

오늘날의 문화는 일반적으로 혼합화 혹은 혼종화(Hybridisierung)로서 특징지어진다. 모든 개별적인 문화에 있어서 모든 다른 문화들은 ‘경향적으로’ 이미 개별적인 문화의 내적인 요소 혹은 그런 문화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것은 인구, 상품 그리고 정보의 차원에서 타당하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다른 국가에서 건너 온 민족들이 살고 있다. 모든 상품들은 어디서나 구입 가능하며, 게다가 통신기술의 전지구적인 네트워크 형성은 모든 정보를 똑같은 시점에서 동일하게 확보할 수 있다. 문화의 결정 원리가 그 내용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전달되는 매체라는 맥루한(M. McLuhan)의 선언은 ‘세계화’, ‘정보화 등의 용어로 함축되는 새로운 세계체제의 분기점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탁월한 통찰력을 보여주는 것이다.³²⁾

이런 배경에서 이제 더 이상 전적으로 낯선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내적 혹은 외적인 도달범위 안에 있다.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고유한 것도 거의 없다. ‘진정성’(Authentizität)은 이제 민속학의 대상이 되었으며, (토착인이 이미 오래전부터 속한) 타자에 있어서 진정성은 가장된 고유성이다. 아마 여전히 국지적인 문화의 수사학이 존재하지만 이 수사학은 극도로 가장된 것이며 미학적이다. 실체에서는 대부분의 것이 초문화적으로 규정된다. 한 문화의 내적인 관계에서는 오늘날 많은 타자성이, 다른 문화에 대한 외적인 관계에서처럼, 존재한다.³³⁾

물론 초(超)문화주의에 기대어 이루어진 이러한 문화 이해가 지극히 편협하고 극단적인 진단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문화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31) 김은중, 「세계화, 정체성, 다문화주의」, 『라틴아메리카연구』 18(2005), 147쪽.

32) 같은 논문, 138쪽.

33) W. Welsch, 위의 논문, 72쪽.

문화(형식)의 변동이 그 뿌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헤르더의 구(球)의 은유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폐쇄-순환회로의 세계화’가 아니라 유동성, 비결정성,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접선의 세계화’가 상당한 진척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현실이다.³⁴⁾

2) 미시적 관점에서의 초(超)문화주의 현상: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의 형성

더 나아가 초(超)문화주의는 사회의 거시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미시적 차원에까지 유포된다. 우리들 중 대부분은 문화적 형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화적 유래와 결속을 통하여 규정된다. 예컨대 오늘날 많은 학자들과 작가들은 그들의 다양한 문화적 경험에 기초하여 그들이 하나의 고향이나 조국이 아니라 상이한 연관국가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강조한다.³⁵⁾ 그들의 문화적 형성은 초(超)문화적이며, 이러한 경향이 미래 세대에게는 더 강하게 나타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1970년대부터 사회학자들은 다양한 방식에서 근대적인 인생행로가 다른 사회적 세계를 통한 이동으로서, 그리고 가능한 정체성들의 계열의 단계적인 실현으로서 파악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후기 산업사회의 이론가인 벨(D. Bell)이 횡단적(중첩적) 정체성(cross-cutting identities)³⁶⁾으로 표현한 의미로서 우리 모두는 중복적인 추종(애착)과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그러한 복잡한 종류의 문화적 정체성은 단일문화가 지향하는 민족적인 정체성과 동격화될 수 없는 것이다. 문화적 정체성과 민족적 정체성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한 개인의 문화적 형성이 전적으

34) 같은 논문, 139쪽.

35) W. Welsch, 위의 논문, 72쪽.

36) D. Bell, *The Winding Passage. Essays and Sociological Journeys 1960-1980*, Cambridge, Mass. 1980, 243쪽.

로 그의 민족성과 국적을 통해 규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편협한 가정이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의 모든 문화구상이 초(超)문화적 기초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5. 나오면서: 문화이해와 인간이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의 본래적 가치는 ‘문화적 작용’(문화화)의 성취에 달려있다. 문화화는 지속적인 결합과 분리 그리고 극복이라는 역동적인 과정을 전제로 한다. 그런 배경에서 다문화 사회라는 현실에서 우리는 상이한 문화들 사이의 갈등을 ‘문제’로서가 아니라 창조적 발전을 위한 ‘계기’로서 인정하는 문화 이해가 요청된다. 문화는 끊임없는 형성의 과정이고, 이런 과정에서 갈등은 오히려 문화의 창조적 요소이며, 심지어 갈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것의 창조는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다양한 문화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특정한 개별 문화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와 발전의 과정에서도 타당하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면서 기존의 문화 형식(이해)을 넘어서고 있다.³⁷⁾ 바꾸어 말하면 우리에게 갈등의 소지를 제공하는 타문화는 우리 문화 속으로 파고들어 새로운 형성체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 동력인 것이다.

다문화주의가 이념적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인 상호 소통적 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즉 ‘융합적 다문화주의’, 더 나아가 초(超)문화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 매체, 개인 그리고 국가 등의 다양한 노력과 성찰적 실천이 요구된다. 그것은, 토니 모리슨(T. Morrison)이 『사랑하는 사람』(Beloved, 1987)에서 잘 묘사하듯이, 다문화주의의 인정이 외관상은 인종 차별, 성차 등을 극복한다고 내세우지만 저변에서는 새로운 단일한 힘과

37) G. Simmel, 『게오르그 짐멜의 문화이론』(김덕영 외 옮김), 도서출판 길, 2007, 133쪽 아래 참조.

이데올로기를 관찰하기 위한 의도에 의해서 여전히 중심과 주변에 대한 경계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내부적 갈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⁸⁾

그런 의미에서 타문화를 단순히 특정한 통일성을 지향하는 변증법적 계기로서 이해하는 것은 타문화를 수단적 의미로 평가절하하려는 태도이다. 타문화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타자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포함한 인간에 대한 이해이어야 한다. 우리도 그들에게는 타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그들이 합해서 바로 인류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문화는 일종의 “열려있는 커뮤니케이션 공간”³⁹⁾으로서 나와 타자를 연결시키는 가교의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삶을 이해하듯이(historia vitae magistra) 고유문화와 타문화를 통해 인간 삶의 가능성과 새로운 현실을 경험할 수 있다(cultura vitae magistra). 타문화는 단순히 우리에게 마주하고 있는 객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구성적’이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의 뿌리이다. 역설적이지만 ‘우리’의 벽을 허물고 넘어서는 노력이 바로 ‘우리’를 찾아가는 길인 것이다.

(중앙대학교)

38) 박은정,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의 다양한 시각, 그리고 다문화주의」, 『안과 밖』 7호 (1999), 346쪽.

39) R. Konersmann, 위의 책, 9쪽.

참고문헌

- Theodor, W. Adorno, *Minima Moralia*, in: Ders., *Gesammelte Schriften*, Bd., 4, FfM(Suhrkamp) 1980.
- D. Bell, *The Winding Passage. Essays and Sociological Journeys 1960-1980*, Cambridge, Mass. 1980.
- T.S. Eliot, Beiträge zum Begriff der Kultur, in: Ders., *Essays I(Werke 2)*, FfM(Suhrkamp) 1967.
- Henry Louis Gates, Jr., "Beyond the Culture Wars: Identities in Dialogue", *Profession* 93(1993).
- D. T. Goldberg, *Multiculturalism: a Critical Reader*, Oxford 1994.
- J.G. Herder, *Ideen zur Philosophie der Geschichte der Menschheit*(Hg. M. Bollacher), FfM 1989.
- R. Konersmann, *Kulturphilosophie*, Hamburg 2003.
- G. Simmel, *Philosophische Kultur. Gesammelte Essays*, Leipzig 1911,
- G. Simmel, 『게오르그 짐멜의 문화이론』(김덕영 외 옮김), 도서출판 길, 2007.
- W. Welsch, Transkulturalität. Zur veränderten Verfassung heutiger Kulturen, in: *Hybridkultur*(Hg. I. Schneider/C. W. Thomsen), Köln 1997.
- R. Zoll, 『오늘날 연대란 무엇인가』(최성환 옮김), 도서출판 한울, 2008.
- 곽준혁, 「다문화 공존과 사회적 통합」, 『대한 정치학보』 15집2호(2007).
- 김남국, 「다문화 시대의 시민: 한국사회에 대한 시론」, 『국제정치논총』 제 45집 4호(2005).
- 김옥동, 「다문화주의의 도전과 응전」, 『미국학논집』, 제30집 1호(1998).
- 김은중, 「세계화, 정체성, 다문화주의」, 『라틴아메리카연구』 18(2005).
- 김비환, 「포스트모던 시대에 있어 합리성, 다문화주의 그리고 정치」, 『사회과학』 제35권 1호(1996).
- 라종일, 「세계시민 연구와 다문화주의적 정체」, 『유럽연구』 5호(1997).

철학탐구 제24집

박은정,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의 다양한 시각, 그리고 다문화주의」, 『안과 밖』 7호(1999).

이상길/안지현, 「다문화주의와 미디어/문화연구: 국내 연구동향의 검토와 새로운 전망의 모색」, 『한국언론학보』, 51권5호(2007).

이재정,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의 모색. -재한외국인 정책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11(2003).

정상준, 「다문화주의를 넘어서」, 『미국학』 24집(2001).

홍경자, 「세계화시대의 문화정체성 문제」, 『해석학연구』 18집(2006).

Begriffe und Perspektive des Multikulturalismus

Sung-Hwan Choi

In der Mitte der mit der Globalisierung zustande gekommenen sozialen Veränderung liegt die Aufgabe, den kulturellen Bereich wieder festzustellen. Dies könne durch den Begriff 'Multikulturalismus' möglich sein. Insbesondere in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 die an der autoritären politische Struktur und der Ideologie der starken Einzelkultur beharrt hat, ist der Multikulturalismus auf längste Zeit weder erkannt noch thematisiert worden, ohne zu fragen, ob der Multikulturalismus von langem her da ist. Aber in den jüngsten Jahren ist die Situation ganz anderes geändert worden. Es gehört zu einem Faktum, daß der traditionelle Kulturbegriff als eine Einzelkultur heute nicht mehr den Kulturphänomen entspricht, die wir erfahren haben. Folglich ist es unentbehrlich, über die traditionelle Kulturform(verstehen) hinausgehen, um unsere kulturelle Identität festzustellen und zu bestimmen. Dies ist ein Krisisphänomen, welches G. Simmel vor einem Jahrhundert als die Tragödie der Kultur formuliert hatte. In dieser Situation wurde die objektive Kultur und die subjektive Kultur miteinander nicht in Einklang kommen. Hier beginnt der Irrweg des kultur kreativen Subjekts, das in der massen Bewegung der objektiven Kulture nicht mehr standhalten konnte. In diesem Hintergrund ist es eine sehr dringende Aufgabe, eine Orientierung für Kulturverstehen anzubieten.

Die vorliegende Arbeit versucht, die neue kulturelle Wirklichkeit, mit der die moderne koreanische Gesellschaft konfrontiert, zu erklären und neue Interpretationsweise anzugeben. Dafür muß man die Grenze des traditionellen Kulturbegriffes analysieren und danach das Konzept des Multikulturalismus darstellen, der zustande gekommen ist, indem er über

die Grenze des traditionellen Kulturbegriffs hinauszugehen suchte. Aber hier wird die These vertritt, der Multikulturalismus viele Schwierigkeiten hat, wenn er über soziologische Tatsache als Wirklicheiterkenntnis hinaus ein normativen Postulat als regulatives Wert darstellen wird. Daher wird es versucht, um diese Schwierigkeiten zu überwinden, anhand des Transkulturalismus, den W. Welsch vorgeschlagen hat, einen möglichen Ausweg des Multikulturalismus herauszufinden

Key Words: Kulturkrise, Kulturbegriff, Multikulturalismus, Transkulturalismus

최성환 e-mail: shchoi@ac.kr